

T4 PTS 사용법

3개의 프로젝트 - subway, bus, 정산프로그램을 같은 시그윈 폴더내에 실행 시킨다.

실행파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행이 안 된다.

따라서 컴파일을 다시 해주어야한다. -->c파일과 h파일 모두 다!!

ex) adjust

```
gcc -o exe getinfo.c getinfo.h
```

subway와 bus같은 경우는 c파일과 h파일이 좀 많으니깐...알아서 잘 하시길 바람

또한 파일을 절대 경로로 지정해준게 아니므로 컴파일 후 실행 파일은 따로 하나의 폴더에 옮겨서 실행한다.

타고 싶은 교통수단프로그램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다. 없으면 새로 만들고 최초 충전 금액 정해준다.

맨 처음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는 이전의 사용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차를 할 수 없다.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승차는 0, 하차는 1로 동일하다.

- 버스의 경우에는 단말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 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은 지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승차(0)을 입력해주면 승차가 된다. 버스의 단말기 정보는 a라고 정해주었다.

- 지하철의 경우에는 단말기가 역별로 총 5개가 존재한다. 단말기는 b~f로 정해져있고 역별로 다르다. 승차(0)을 입력할 경우 승차할 역(b~f)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승차를 하고나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하차를 할 수도 있고 승차를 할 수도 있다. 물론 하차의 경우는 타고 있는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 승차의 경우는 버스, 지하철 상관없이 동작하게 되고, 지하철 승차 후 지하철 승차 or 지하철 승차 후 버스 승차와 같은 경우는 미정산 요금이 부과되고, 버스 승차 후에는 지하철 승차를 하든, 버스 승차를 하든 기본요금이 부과된다.(요금계산 방법에 따라서...)

만약 앞에 환승이 있는 상태에서 승차를 하고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고 다시 승차를 한다면 600원 아니면 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승을 할 때는 같은 교통수단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이 된다. 환승을 할 경우에는 단말기 정보도 그대로 전달된다. ex) 버스(a)에서 지하철로 환승을 할 경우 ==>지하철 승차 태그 시에 단말기 정보는 a로 입력이 된다. 또한 환승은 15초 이내에만 적용이 된다.

승차를 할 경우 사용자 잔액을 판단해서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승차 하차 두 경우 모두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요금을 부과한다.

3분(하루)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는 승차 상태의 이용자는 미정산 처리로 된다. 또한 3분이 경과되면 정산을 실행하게 된다.